

'자치경찰 이원화' 권고안 결론 또 못냈다...위원회 활동 재연장

✎ 배상철 | ⓒ 승인 2023.05.23



▲ 조지호 경찰청 차장(위줄 오른쪽), 김희중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위줄 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박인환 위원장(아래)을 지나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이하 경발위)가 23일 자치경찰 이원화 등 경찰 개혁 방안을 두고 회의를 열었으나, 일부 안건에 대한 위원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발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당초 마지막 회의로 예고했던 12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자 위원회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사항을 정리해 자치경찰 이원화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안건에 대한 보완 필요성 등이 제기됐고, 당초 내달 5일까지였던 임기를 '위원회 종료 의결 시'까지로 연장했다.

경발위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경찰대학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논의가 완료된 권고안은 우선 발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시점을 못 박아두기보다는, 의결로서 종결하겠다"라면서 "길어도 연말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대학 등 일부 안건에서 의견이 갈렸고, 이 부분이 위원회 임기 연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경발위 회의 진행 상황을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경찰대 폐지 문제는 위원들 의견이 거의 절반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상철 bsc@kado.net